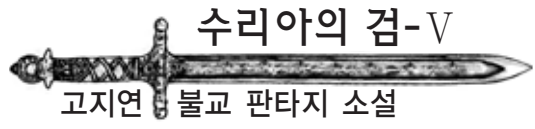


어리석은 이는 자기 할 일을 죽음 앞에서 신에게 미뤄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4)

“이 바보 멍청아!” 라고 했겠지.
 무니의 이 대답에 유리 영감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우주의 시작이든 끝이든, 그건 알아서 뭐 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말이야.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걸. 그게 뭐야? 늙은 아버지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하하하, 녀석, 참!”
 유리 영감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그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난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잖아? 얻을 게 없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리 영감은 난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난다, 네 말도 맞다. 답이 없거나, 얻을 것이 없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 다만 그 질문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단다. 만약 그걸 모른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겠나?”
 유리 영감은 얼른 화덕에서 잘 구워진 밥 몇 알을 꺼내 무니와 난다에게 건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중에도 분명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복 혹은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평생을 보내고 말아. 그러다 비로소 죽음을 맞이할 때쯤 되면 허공에도 닿지 못할 가냘픈 목소리로 신의 존재를 찾지. 그들의 한결같은 어리석음을 구원해줄 신은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야. 고통이 사라지는 곳에 행복이 있고, 행복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필요없지 않겠나.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야 신에게 미루곤 해.”
 이 말을 하는 동안 유리 영감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엄격했다. 난다는 호호 불면서 잘 간 밥 몇 알을 유리 영감에게 건네주었다. 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밥이었다. 무니는 밥을 육식갯 입에 가득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은 현자로부터 답을 얻긴 얻었어?”
 “그래.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마. 젊은이의 그 질문에 지혜로운 자가 대답한 첫 마디는 ‘자네는 어리석은 자로군.’ 이었던단다.”
 “거 봐. 내가 그랬을 줄 알았어!”
 무니가 또 밥 한 알을 입에 쑥 넣으며 말했다.
 “후후. 그래. 아무튼 지혜로운 자의 그 한 마디에 젊은이의 마음은 떨쳐 내려앉은 듯 했단다. 그가 ‘무



삼화·김홍인

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물자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자네가 살아가야 할 삶을 방지하고 있네. 스스로의 행복과 행복이 사라지고 나서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과 의복, 그리고 누울 수 있는 자리 또한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네. 세계의 시작이나 혹은 그 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네의 삶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인가?”
 젊은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 늙은 아버지는 연민의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가 명상에서 깨어날 때를 기다렸다. 바람과 반짝이던 나무 그림자, 구름까지 멈춘 듯 했다. 시간만이 침묵 속에 언제나와 같이 흘러갔을 뿐이지. 이윽고 지혜로운 자가 눈을 뜨더니, 청년을 향해 말했다. “이제 그 질문에 이제 답하겠네. 청년의 눈이 번쩍 뜨였지. 마을 사람들도 그 못지않게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리

석은 질문이라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그러나 이것이 젊은이 자네의 삶에 유효한 답이 아니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내 답이 자네를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춘 후, 마치 누가 거기 서 있는 듯 허공에 시선을 맞췄단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절대적인 답은 있지 않다는 걸세. 세계의 탄생과 소멸 역시 마찬가지지. 소멸은 탄생의 원인이 되고, 탄생은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말이야. 저 세계의 소멸과 동시에 이 세계가 탄생하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 탄생의 결과이며 소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말아야 라고 말했다.”
 말을 잠시 멈춘 유리 영감은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 가지고 돌아왔다.
 “그건 뭐예요, 할아버지?”
 난다가 유리 영감이 책을 펼치는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브하사〉라는 책이란다. 전설의 모험가였던 쿠상

이 고대어로 기록해 놓은 일기를 팔판이라는 한 위대한 학자가 평생에 걸쳐 해석해 펴낸 것이지. 이 책에 따르면 쿠상은 수메르산 정상에 올라 ‘이 세계’를 한 눈에 담았던 유일한 인간으로, 그가 이 모험에서 돌아오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걸렸던터구나. 특히 쿠상은 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옛 이야기를 수집해 모두 기록해 두었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현자와 젊은이 이야기도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것이란다.”
 그러더니 유리 영감은 자신이 펼친 책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에 그 젊은이가 현자로부터 어떤 답을 얻었는지 써있으니 한 번 읽어보겠나?”
 난다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아든 책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단지 그 자체일 뿐인 허공. 빛 한 줄 없는 그것은 끝없는 암흑과도 같다. 공간의 이동도 시간의 연속도 느낄 수 없는 텅 빈 어둠. 그렇게 광대하고 텅 빈 공간에 반짝이는 금빛 먼지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미세한

바람에 실려 암흑 속에 빛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먼지들. 그들은 거대한 빛의 띠를 만들며 대기층을 형성하게 된다. 수 억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윽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천상이 완성된다. 하늘이 만들어진 뒤에도, 대기층 위로 미풍은 여전히 불어온다. 대기는 금빛 먼지들로 가득 찬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먼지들은 결국 낙하, 고운 금빛의 먼지들이 대기의 빛이 아직 닿지 않아 어두운 저 아래로 내려앉는다.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바다. 또 다시 수 억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이 세계의 본질이 완성된다. 땅과 하늘은 뿔기 힘들 정도로 견고하다. 결국 낙하하던 먼지들은 땅에 부딪혀 다시 대기로 솟아오른다. 그러나 하늘에도 부딪혀 공중을 맴돌게 되는 먼지들. 그것들이 회오리치며 영기기 시작한다. 이윽고 만들어지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 그 구름은 비가 되어 세차게 땅으로 쏟아진다. 수 억 년 동안 쉬지 않고 쏟아지는 비, 이제 물의 층, 즉 바다와 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 세계의 형태를 상징하는 물이 완성된다. 그리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다. 솟아오르던 금빛 먼지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더니, 끊임없이 불어오던 미풍이 잦아든다. 적막뿐인 신세계. 그때 어디선가 물결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서도 온 우주를 진동시킬 만큼 커다랗게 세상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눈이 부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한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떠내려 오기 시작하는 그 무엇. 그것은 찰랑찰랑하는 소리를 내며 땅 쪽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거대한 금빛 먼지 덩어리, 하나이면 서도 전부인 존재, 바로 사트바 카르만이다. 금빛의 사트바 카르만이 땅으로 올라서자, 그 거대한 힘에 또 다시 회오리치기 시작하는 먼지들. 그가 움직일 때면 거세졌다가, 그가 멈추면 다시 잠잠해지기를 반복하며 1억년의 시간이 흘러간다. 그 바람이 스쳐간 곳에는 금빛을 잃은 거친 먼지들만이 흔적처럼 쌓여간다.
 이윽고 신세계의 중심에 쿵하고 멈춰 선 사트바 카르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한다. 회오리바람, 천둥과 번개,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물방울들, 사트바 카르만이 멈춰 선 그 자리에는 우뚝, 가늠키 힘들 정도로 높은 산이 솟아오른다. 끝이 없는 산 수메르, 후에 사람들이 부르게 되는 그 산의 이름이다. 이어서 또 한 번의 고요가 찾아온다. 바람 없는 공간은 마치 정지된 듯하고, 낮도 밤도 아닌 하늘은 보랏빛이다. 움직인다고는 솟아올랐던 물방울들이 땅 속 깊숙이 스며들며, 어딘가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모습 뿐. 그러나 이 물방울에서부터 이 세계의 신화가 시작된다...” 와! 할아버지. 이 건 정말 굉장한 이야기네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말이에요.”
 난다는 책장을 덮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나 무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게 정말일까. 예전에 그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도 이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태어난 사람일 텐데 말이야.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없잖아. 사트바 카르만이라니.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863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 가액: 3억 1천 만원

010-2637-6144

사찰(인법당)

- 위치 부산 온천동 금정마을(11년차)
- 단층출라브 62평, 법당 27평, 방3 (전체 보일러)
- 대웅전, 지장전, 산신, 칠성, 입구 약사석불, 5층석탑
- 공간간 27평(가건물) 별도, 입구방 5평(다락집)
- 가액: 1억 6천만원(음자 6500별도)

011-842-6123

포교원 안내

- 대구시내(지하철역 입구요지)
- 3층에 3층 37평(육상단독사용)
- 법당(수미단, 후불, 선종, 산신, 용왕, 영단 최고시설)방1, 주방, 사무실, 화장실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53)795-3666

사찰양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매장 많음.
- 대rob면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남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1-455-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금)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사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명가적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등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시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금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조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